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 연구위원 · hspark@sdi.re.kr

양승희 연구원 · sunsh@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서울경제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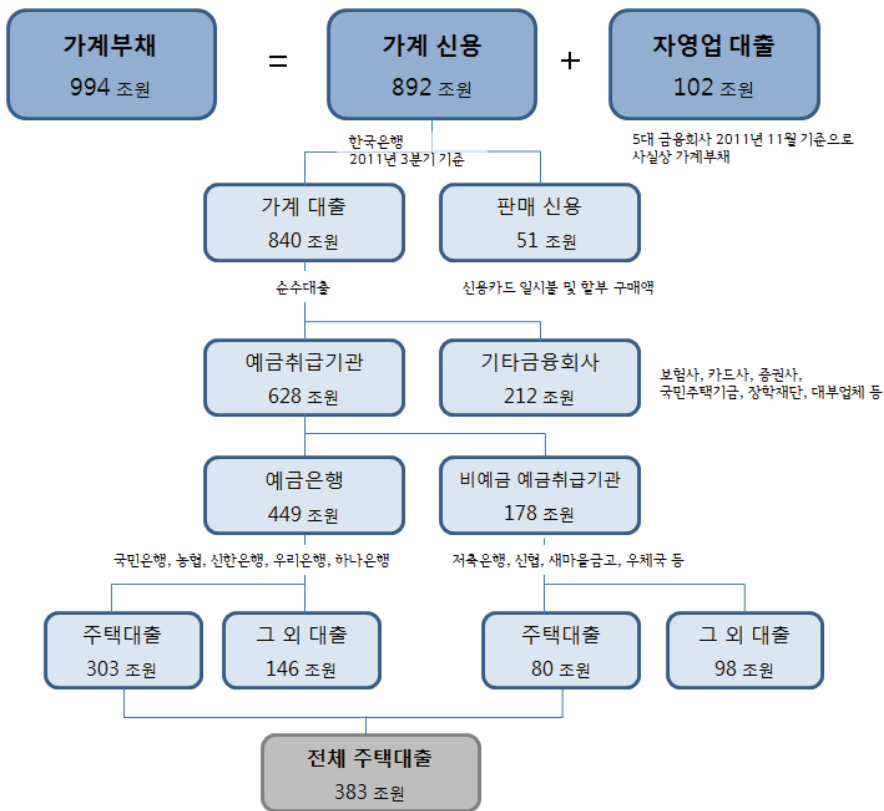
- I. 머리말
- II. 국내 및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현황
- III. 서울 가계부채의 특성
- IV. 결론 및 시사점

1. 머리말

-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말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
 - 가계대출은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와 기타 금융회사(보험기관,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포괄
 - 판매신용은 개인 등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일시불 및 할부 구매액을 말함
- 국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됨¹⁾
 - 현재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892조원(2011년 3분기 기준)과 사실상의 가계대출 중 하나인 자영업 대출 102조원(2011년 11월 기준)을 포함하여 994조원에 달함
 - 가계신용은 2002~2010년 중 연평균 9.3% 증가하였고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9%를 상회하고 있음
- 국내 가계부채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고 생활유지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카드의 대출 등이 반복되고 있음
 - 2011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 383조에 달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1.2%를 차지하고 있음
 -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은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생활고 해결과 교육비 대출 증가 등으로 볼 수 있음
- 과도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생산을 감소시키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가계부채의 문제가 현실화되면 파산하는 가계가 속출할 수 있고 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 등 자산을 헐값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음

1)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12월에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과 서울의 가계부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전국²⁾과 서울지역³⁾ 가계부채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를 이용함
 -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⁴⁾를 통하여 부채 유무, 부채 목적, 부채 비율 등을 분석함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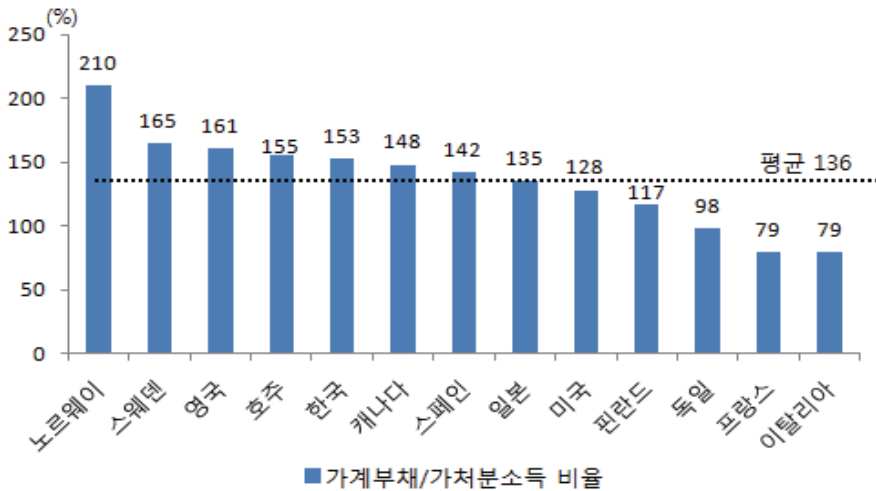
[그림 1] 국내의 가계 부채 현황(2011년 11월)

2) 지역별 통계가 활용이 가능한 시점과 항목에 따라 전국은 2002~2010년까지, 가계신용(가계부채)으로 한정
 3) 서울은 2007~2011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로 한정하고 2011년은 11월까지의 집계를 기준으로 함
 4) 본 조사는 SDI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의 부가조사로 2011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가구를 표본으로 함

II. 국내 및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현황

1. 국내의 가계부채 현황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의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않으며, 증가속도도 빠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3%로 13개국⁵⁾ 중 5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냄
 - 2000년과 2009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변동폭은 56.8%p로 13개국의 평균 36.7%p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국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던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데 반해 국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주 :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가처분소득은 국민계정상의 개인 부문 순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9월)

[그림 2] 2009년 주요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5) G20 국가 중 자료 입수가 가능한 9개국(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스페인 및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총 13개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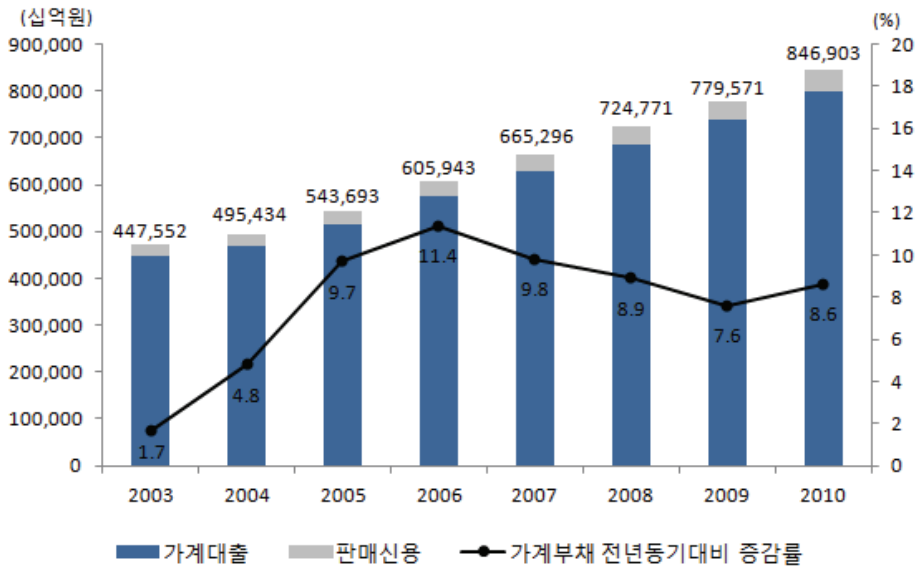
<표 1> 2000년 대비 2009년 주요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의 변동폭
(단위 : %p)

스웨덴	호주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59.7	59.4	56.8	56.0	54.7	49.8	47.3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평균
35.2	32.5	27.5	24.0	-9.0	-16.5	36.7

자료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0년 9월)

○ 국내 가계부채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가처분소득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가계부채는 846.9조원(가계대출 797.4조원, 판매신용 49.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6% 증가하였음
-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3년 1.7%에서 2006년 11.4%로 증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9%(2005~2010년)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주 : 가계부채(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3] 국내의 가계부채 추이

<표 2> 국내의 가계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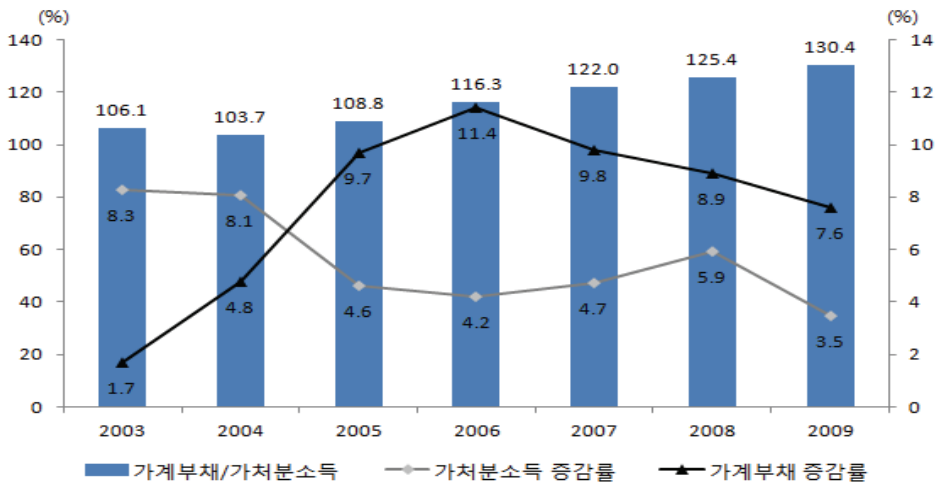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계 부채	47.2 (1.7)	49.5 (4.8)	54.3 (9.7)	60.5 (11.4)	66.5 (9.8)	72.4 (8.9)	77.9 (7.6)	84.6 (8.6)	89.2 (-)
가계대출	44.5 (7.0)	47.0 (5.4)	51.5 (9.7)	57.4 (11.4)	57.4 (9.7)	68.4 (8.7)	73.7 (7.7)	79.7 (8.1)	84.1 (-)
판매신용	2.6 (-44.5)	2.5 (-5.1)	2.8 (10.9)	3.1 (12.5)	3.5 (11.9)	3.9 (13.1)	4.1 (4.4)	4.9 (18.5)	5.1 (-)

주 : 2011년은 3분기 기준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부채규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가계부채 증감률이 가처분소득 증감률에 비해 큰 폭으로 상회함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2004년 103.7%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9년 130.4%를 기록함
 - 2004년 이후 가계부채 증감률은 가처분소득 증감률을 상회하고 2009년 가계부채 증감률은 가처분소득 증감률 3.5%보다 2배 정도 큰 7.6%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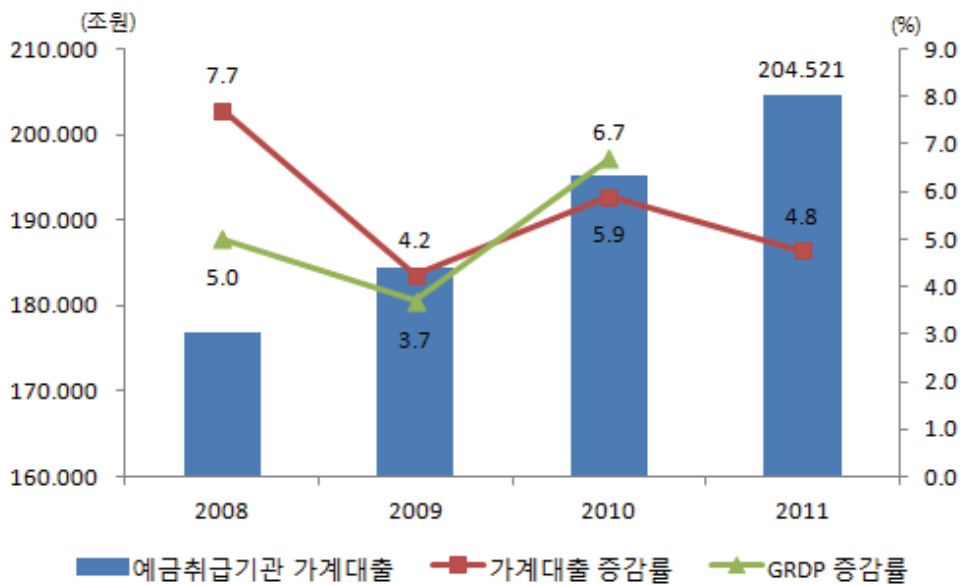
주 : 가처분소득은 국민계정상의 개인처분가능소득을 사용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4]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의 비중 및 증감률 추이

2.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현황

- 서울의 가계부채⁶⁾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감률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가계부채는 204조 521억원(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하였음
 - 서울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08년 7.7% 이후로 감소추세이나 연평균(2008~2010년) 5.9%로 서울의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감률 5.1%보다 높은 수준임
 - 또한 2007년 대비 금액기준으로 1.3배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주 : 2011년은 전국과 그 외 지역 모두 11월 집계 기준
 GRDP는 명목기준으로 현재 2010년까지 집계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5] 서울의 가계대출 추이

6) 지역별 통계 활용이 가능한 2007년부터 예금은행과 비은행(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회사, 우체국)의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로 한정

<표 3> 서울의 가계부채 현황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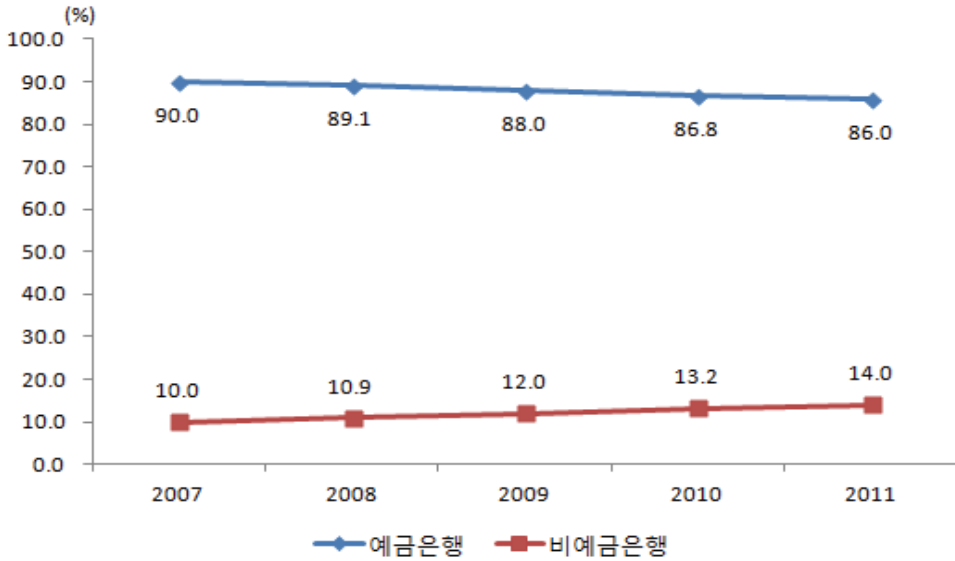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계 대출	164.207	176.873 (7.7)	184.386 (4.2)	195.234 (5.9)	204.521 (4.8)
예금은행	147.815	157.670 (6.7)	162.208 (2.9)	169.397 (4.4)	175.815 (3.8)
주택대출	98.375	100.189 (1.8)	104.955 (4.8)	109.490 (4.3)	113.239 (3.4)
그 외 대출	49.440	57.481	57.253	59.907	62.288
비예금은행	16.392	19.204 (17.2)	22.177 (15.2)	25.837 (16.5)	28.707 (11.1)
주택대출	9.835	12.295 (25.0)	14.876 (21.0)	15.944 (7.2)	16.867 (5.8)
그 외 대출	6.557	6.909	7.301	9.893	11.840

주 : 2011년은 11월 기준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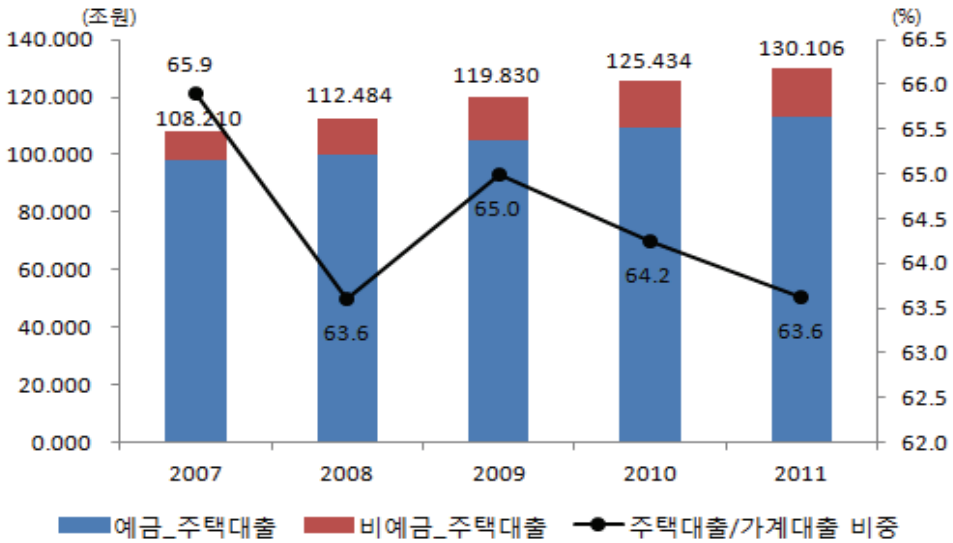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2007년 90.0%에서 2011년 86.0%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007년에 10%에서 2011년에 14.0%로 5년간 4%p 증가하였음
 -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비예금은행의 증가율이 예금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비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감률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감률의 3배 정도 큰 11.1%를 기록함
- 주택담보대출은 서울의 가계대출에서 평균 64%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2011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은 130조 106억원(예금은행 113조 239억원, 비예금은행 16조 867억원)으로 서울 가계대출의 63.6%를 차지함
 -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은 감소추세이나 2011년 11월 기준으로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은 5.8%로 예금은행의 3.4%보다 여전히 높음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6] 금융기관별 가계대출의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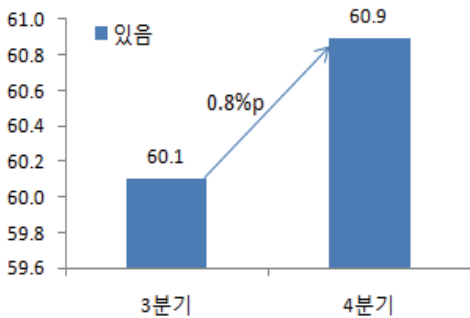
[그림 7]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추이

III. 서울 가계부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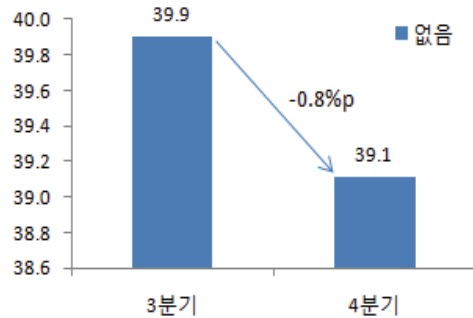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SDI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체감 경기전망」의 부가조사를 토대로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특성을 분석하였음
- 2011년 3/4분기와 4/4분기의 가계부채 조사결과를 통해 소득분위별, 연령별 서울의 가계부채 유무, 보유자산대비 부채 비중, 부채의 주 사용목적 등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가계부채 유무

- 조사대상 가구⁷⁾ 1000 가구 중 약 절반 이상은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4/4분기를 기준으로 모든 소득계층의 60.9%는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전분기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가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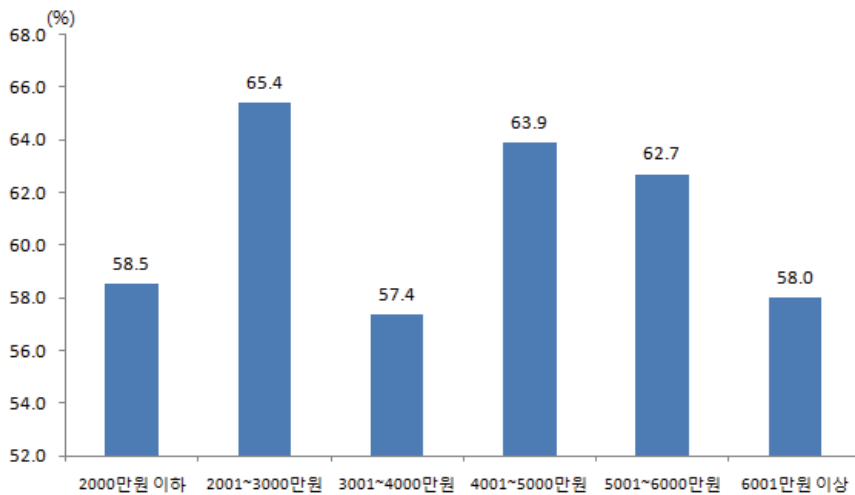
[그림 8] 가계부채 없는 비중



[그림 9] 가계부채 있는 비중

7)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연령별 가구분포(만 20~69세)는 20대 25가구, 30대 223가구, 40대 324가구, 50대 260대, 60대 168가구로 할당.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응답하였음

- 2011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50% 이상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이 2001~3000만원, 4001~5000만원, 5001~60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65.4%, 63.9%, 62.7%로 대체적으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01~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부터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계부채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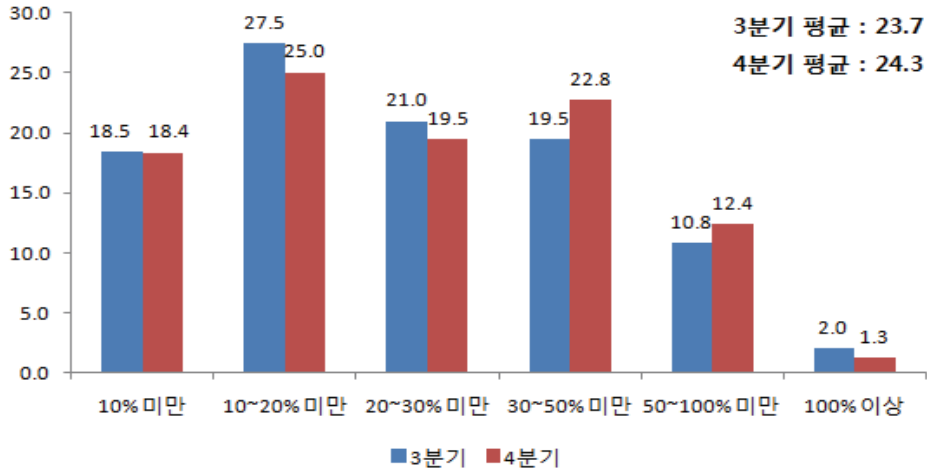


[그림 10]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비율(2011년 4/4분기)

2. 보유자산대비 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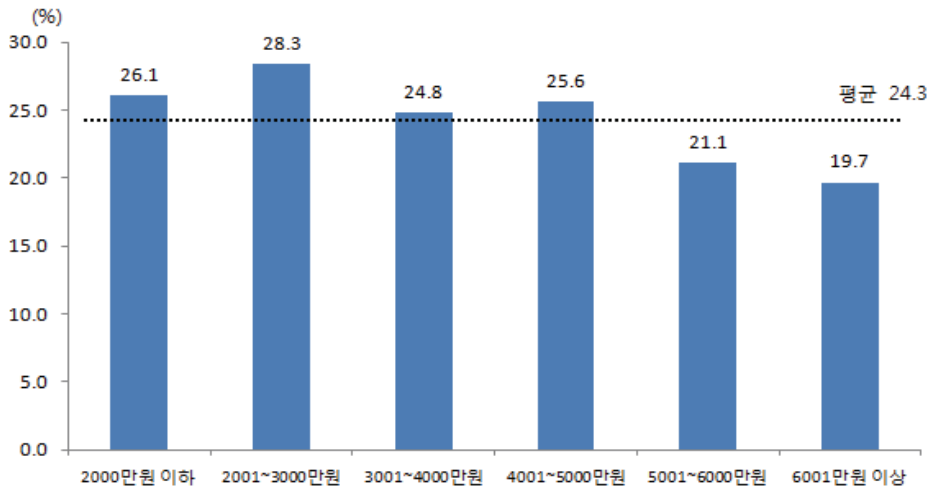
-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⁸⁾의 보유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 대비 부채 비중은 24.3%(4/4분기 기준)로 조사됨
 -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중은 3/4분기에 이어 4/4분기도 10~20%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중을 살펴보면, 30~50% 미만은 전분기에 비해 3.3%p 증가한 22.8%를 나타낸 반면 10~20% 미만은 25.0%로 2.4%p 감소하였음

8) 2011년 3/4분기 601가구, 2011년 4/4분기 615가구가 응답함



[그림 11] 2011년 보유자산 대비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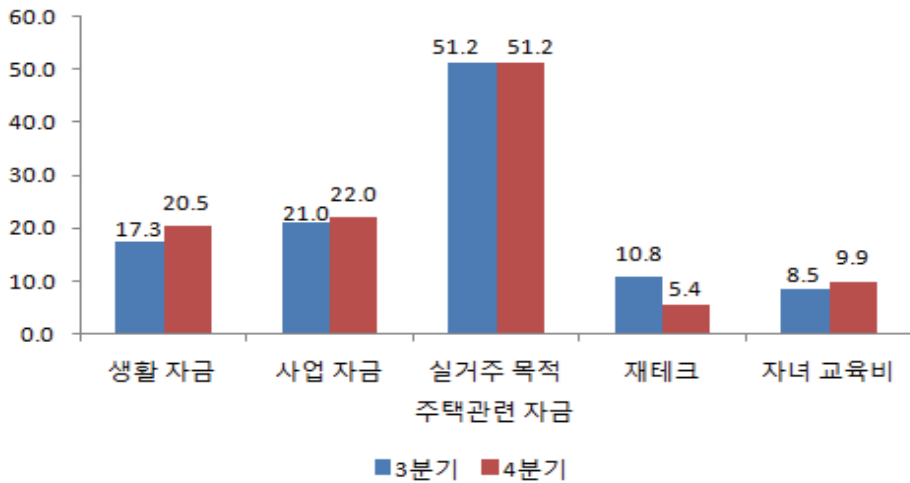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에서는 평균 24.3%를 상회하고 있어 고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소득계층별로 2001~3000만원의 계층이 28.3%로 가장 높고 2000만원 이하 계층 26.1%, 4001~5000만원 이하 계층 25.6%, 3001~4000만원의 계층 24.8%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소득계층별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2011년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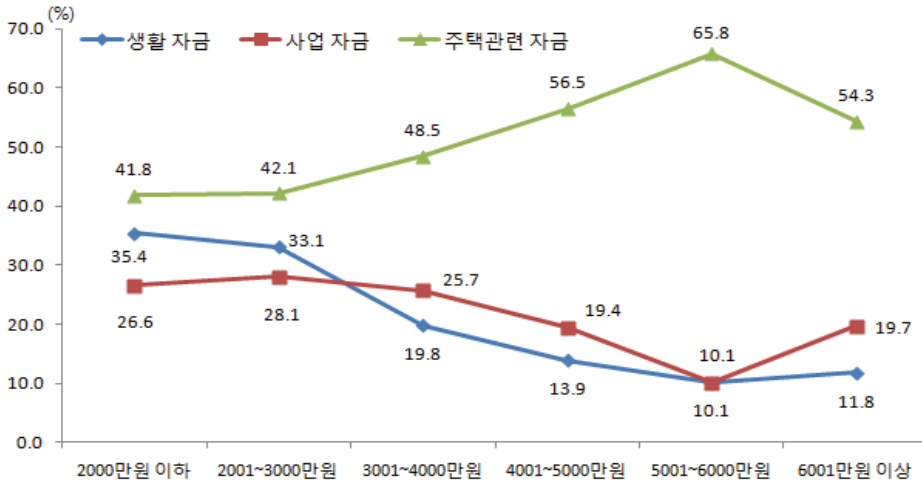
3. 부채의 주 사용목적

- 부채의 주 사용목적(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및 전세 등 실거주 목적의 주택관련 자금이 5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 외 2011년 4/4분기 기준으로 사업자금 22.0%, 생활자금 20.5%, 자녀교육비 9.9%, 재테크 5.4% 순으로 나타냄
 - 특히, 생활자금 대출과 사업자금 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3.2%p, 1.1%p 증가한 반면 재테크는 5.4%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형 자금성격의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13] 2011년 부채의 주 사용목적

- 2011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부채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 계층별로 살펴보면 생활자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32.4%로 가장 높고 사업자금은 2001~3000만원 이하에서 28.1%로 가장 높았음
 -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의 부채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50% 이상이 주택관련 자금으로 조사됨



주 : 가계부채 중 높은 순위 3개의 항목 중심

[그림 14] 소득계층별 부채 주사용 비중(2011년 4분기)

- 종사자 지위별 조사에 있어서도 주택자금관련 가계부채가 평균 51.4%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문직과 관리직, 사무직의 경우 주택자금 관련 부채가 각각 68.5%, 64.4%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직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 자영업의 경우 주택자금 보다는 사업자금 대출 비중이 4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종사자 지위별 가계부채 사용목적 비중(2011년 4분기)

(단위 : %)

구 분	생활자금	사업자금	주택자금
관리직, 사무직	13.9	6.9	63.4
전문직	19.2	15.1	68.5
기능, 노무, 영업직	33.8	11.8	45.6
자영업	19.6	45.1	36.3
무직, 주부	34.0	17.0	43.4

IV. 결론 및 시사점

- 서울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11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204조(예금은행 175조, 비은행 28조)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하였음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률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감률보다 3배 정도 높은 11.1%를 기록하고 가계대출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2007~2011년) 사이에 4%p 증가하였음
-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에서 약 6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2011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은 130조 106억원으로 서울 가계대출의 63.6%를 차지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0가구 중 60.0%는 주택관련 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관련 부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관련 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재테크는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생활형 자금성격의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의 부채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본 결과, 비전문직 분야(기능, 노무, 영업직 등)에서는 생활자금 대출이 자영업에서는 사업자금 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관련 대출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가구는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택을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개보수하고 머무는 집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거래 활성화하여 주택가격의 안정화 필요
 - 서울시에서 저금리로 전세대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지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생활형 가계부채를 가진 저소득층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와 고용시장의 활성화 필요
 - 가계대출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경영교육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용하여 스스로 가계부채를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
 -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 및 직업능력 배양
- 가계부채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스스로 가계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계부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에서 희망통장 사업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애 재무설계 서비스는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필요

부록 : 가계부채 설문조사 결과

〈부록 1〉 가계부채 유무

(단위 : %)

전 체		3분기		4분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60.1	39.9	60.9	39.1
소득계층별	2000만원 이하	55.7	44.3	58.5	41.5
	2001~3000만원	64.0	36.0	65.4	34.6
	3001~4000만원	57.5	42.5	57.4	42.6
	4001~5000만원	64.7	35.3	63.9	36.1
	5001~6000만원	63.5	36.5	62.7	37.3
	6001만원 이상	56.3	43.8	58.0	42.0

〈부록 2〉 보유자산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

전 체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무응답	평균
3분기	18.5	27.5	21.0	19.5	10.8	2.0	0.8	23.7
4분기	18.4	25.0	19.5	22.8	12.4	1.3	0.7	24.3
소득계층별	빈도수	2000만원 이하	2001~3000만원	3001~4000만원	4001~5000만원	5001~6000만원	6001만원 이상	
	3분기	601	24.3	32.2	23.0	22.3	19.8	19.9
	4분기	615	26.1	28.3	24.8	25.6	21.1	19.7

<부록 3> 2011년 3분기 가계부채의 주사용 목적

(단위 : %)

		생활 자금	사업 자금	교육비	주택 자금	결혼 자금	의료비	내구재	재테크	빚,보증	무응답
전체		17.3	21.0	8.5	51.2	0.7	2.0	2.3	10.8	1.0	0.3
가구 소득 계층별	2000만원 이하	26.0	17.8	13.7	42.5	1.4	2.7	0.0	8.2	2.7	0.0
	2001~3000만원	27.7	31.3	9.8	41.1	0.9	4.5	2.7	3.6	0.0	0.0
	3001~4000만원	21.0	17.0	6.0	53.0	0.0	0.0	2.0	7.0	1.0	0.0
	4001~5000만원	12.7	22.7	9.1	52.7	0.9	2.7	3.6	10.9	0.9	0.0
	5001~6000만원	12.5	11.3	8.8	56.3	1.3	1.3	5.0	20.0	0.0	1.3
	6001만원 이상	7.1	21.4	5.6	59.5	0.0	0.8	0.8	15.9	1.6	0.8
종사자 지위별	관리/사무	13.9	5.0	8.9	67.3	1.0	1.0	2.0	13.9	0.5	0.5
	전문/기술	9.9	12.3	6.2	64.2	1.2	0.0	0.0	13.6	0.0	0.0
	기능/노무	31.7	12.7	7.9	41.3	0.0	0.0	11.1	4.8	0.0	0.0
	자영업	17.1	45.9	7.8	35.1	0.0	3.9	1.5	8.3	2.0	0.5
	무직/주부	26.0	8.0	14.0	44.0	2.0	4.0	0.0	12.0	2.0	0.0

<부록 4> 2011년 4분기 가계부채의 주사용 목적

(단위 : %)

		생활 자금	사업 자금	교육비	주택 자금	결혼 자금	의료비	내구재	재테크	빚,보증
전체		20.5	22.0	9.9	51.2	2.4	1.5	1.8	5.4	0.8
가구 소득 계층별	2000만원 이하	35.4	26.6	15.2	41.8	5.1	1.3	0.0	1.3	1.3
	2001~3000만원	33.1	28.1	12.4	42.1	3.3	0.8	3.3	1.7	0.0
	3001~4000만원	19.8	25.7	9.9	48.5	2.0	4.0	1.0	2.0	0.0
	4001~5000만원	13.9	19.4	11.1	56.5	0.9	1.9	1.9	2.8	0.0
	5001~6000만원	10.1	10.1	2.5	65.8	1.3	1.3	3.8	10.1	1.3
	6001만원 이상	11.8	19.7	7.9	54.3	2.4	0.0	0.8	13.4	2.4
종사자 지위별	관리/사무	13.9	6.9	9.3	63.4	1.4	1.4	2.3	10.2	1.4
	전문/기술	19.2	15.1	4.1	68.5	4.1	2.7	0.0	5.5	0.0
	기능/노무	33.8	11.8	14.7	45.6	2.9	1.5	4.4	1.5	0.0
	자영업	19.6	45.1	10.8	36.3	2.0	1.5	1.0	2.5	0.5
	무직/주부	34.0	17.0	9.4	43.4	5.7	0.0	1.9	1.9	1.9

참고문헌

- 참여연대(2011),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 한국경제연구원(2011), 가계부채 현황 및 원인과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원(2011),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
- 한국은행(2010),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
- 서울시(2012), 시정운영계획
- <http://ecos.bok.or.kr/>(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